

국어 조사의 문법적 위치

남 윤 진

1. 문제제기

국어 문법의 기술에서 조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어 정서법이나 학교문법 등 규범적이고 현실적인 사안의 결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어의 이론적 연구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이다. 이는 조사 처리에 대한 입장이 국어학사의 서술에서 국어 문법의 모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 잘 드러난다¹⁾. 이 때 조사처리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논의의 주요 쟁점

- ㄱ. 조사는 단어인가 혹은 단어의 일부 - 접미사인가?
- ㄴ. 조사와 어미를 동일한 범주로 다를 것인가?

(1) 그은 '형태소 < 단어 < 구 < 문장'이라는 위계구조로 언어를 단위화하였을 때 조사가 놓이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전통문법의 품사론에서 다루어졌다. 품사 분류란 문장의 구성요소들이 문장 속에서 맺는 관계를 바탕으로 언어 단위를 분류하는 작업인데, 전통문법에서는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되는 최소의 언어 단위를 '단어'로 설정하기 때문에 조사를 단어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품사 분류의 결

1) 고영근(1993), 임홍빈·장소원(1995)등 참조

과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1) ← 은 (1) ㄱ의 결과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사와 용언 어미의 공통점을 중시하여 이들을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이질성을 중시하여 조사와 어미를 다른 부류로 분류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본고는 전통문법에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특히 (1) 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의 성격을 재음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단어의 개념을 수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사의 성격을 정의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단어의 개념을 받아들이되, (1)에서 전제로 하는 ‘형태소 < 단어 < 구 < 문장’이라는 위계를 조정하여 새로운 위계 구조 내에서 조사의 위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앞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는 박진호(1994), 시정곤(1994) 등을 들 수 있는 반면 뒤의 입장에서 국어의 조사를 다른 논의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조사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조정된 언어의 위계 구조 속에서 조사의 위치를 밝힘으로써 조사의 성격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의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밝혀진 조사의 특성 및 관련 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조사의 특성: 조사 논의의 쟁점과 관련하여

- ㄱ.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혼자서는 문장 구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 ㄴ. 조사는 자신의 선행어의 음운론적 특성에 따라 이형태의 교체가 이루어진다.((3) ㄱ)
- ㄷ. 조사와 통사적으로 관계를 맺는 단위는 형태소(어근), 단어, 구, 절 등으로 다양하다.((3) ←-ㄹ)
- ㄹ. 조사의 선행어가 될 수 있는 범주는 체언, 부사, 용언, 감탄사 등으로 다양하다.((3) ㅁ-ㅅ)
- ㅁ. 조사의 선행어는 대개 자립성이 있어서 선행어와 조사를 쉽게 분리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의 생략도 가능하다.((3) ㅇ)
- ㅂ. 조사는 조사끼리 중첩하여 복합조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3) ㅈ-ㅋ)

(3) 조사 논의의 쟁점을 드러내는 예

- ㄱ. 역에서 30리쯤 떨어진 산골의 그간 자란 마을이다.
- ㄴ. 그 떡집에서 해 온 떡은 보기에 세련은 됐으나 구수한 맛은 없다.
- ㄷ.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교회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의 절반이다.
- ㄹ. 나의 죽음을 병사들에게 알리지 말라간 이순신 장군의 유언이었다.
- ㅁ. 이 엔진을 사용하면 기계작동이 빨리 되는데 안전도가 낮다.
- ㅂ. 내가 섭섭한 것은 네가 집에 늦게 와서가 아니라, ...
- ㅅ. 어머니를 연발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 ㅇ. 이 엔진 사용하면 기계작동 빨리 되는데 안전도 낮다.
- ㅈ. 역으로부터 30리쯤 떨어진 산골이 그의 고향마을이다.
- ㅊ. 이제까지를 돌아보니 감개가 무량하다.
- ㅋ. 집에서는 암전한 아이가 밖에 나오기만 하면 사나워진다.

2. 전통문법의 단어 개념과 조사의 성격

단어는 심리적 실재체로서 그 존재가 분명히 인식되고 있는 언어 단위이지만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문법에서는 단어가 문장 기술의 기본 단위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접사, 어근, 어간, 어기 등 형태론의 중요한 개념들은 모두 단어를 전제로 한다. 전통문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단어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²⁾.

- (4) ㄱ. 문장 구성의 기본 단위이다.
 ㄴ. 자립성이 있는 최소의 단위이다
 ㄷ. 내부에 休止를 둘 수 없다.

2) Matthews(1974), 이의섭·임홍빈(1983), 김석득(1992), 임홍빈·장소원(1995) 등. 여기서 (4) ㄱ은 단어의 문법체계 내에서의 의의를 언급한 것이며, (4) ㄴ, ㄷ은 음운론적 특성, (4) ㄹ, ㅁ은 형태론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언어 단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4) ㄱ, ㄴ이 단어보다 하위의 단위 즉 형태소 단위인 접사, 어근 등과 단어를 구별하는 기준이라면 (4) ㄷ-ㅁ은 단어보다 상위의 단위인 구, 절, 문장 등과 단어를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근. 다른 단어를 개입시켜 한 단어 내부를 분리시킬 수 없다.
- ㅁ. 구성 요소 사이의 순서가 고정적이다

최현배(1937/1971), 이희승(1955) 등을 비롯한 많은 논의가 조사를 단어로 보고 있는데, 규범문법인 학교문법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조사를 품사의 한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는 문장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법범주이므로 단어의 요건을 만족한다((4) ㄱ)³⁾.

둘째, 조사가 문장 속에서 관계를 맺는 단위는 단어보다 큰 단위, 즉 구나 절이 될 수 있다. 조사의 이러한 특성은 조사를 단어로 보는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결정적 근거이다. 조사를 단어로 보지 않고서는 조사가 구나 절과 결합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태소 < 단어 < 구 < 문장’이라는 위계를 전제로 할 때, 조사가 단어가 아니라면 굴절접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⁴⁾. 그러나 조사를 굴절접사라고 하게 되면 구나 절이 굴절접사를 취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며 이는 단어의 어형 변화의 완결이라는 굴절접사의 기능과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⁵⁾.

셋째, 조사의 선행어는 체언뿐만 아니라 체언+조사, 용언어간+활용어미, 부사, 감탄사 등 다양한 구성이 될 수 있는데((3) ㄷ, (3) ㅁ-○), 조사가 단어가 아니라 접사라면, 이런 경우 체언+조사, 용언의 활용형, 부사 등이 접사

3)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김석득(1992: p318)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말 토씨의 말본의 기능적 특징은, 바로 토씨의 빈 현상에서 제기되는 정보의 모호성과 불명백성을 명확한 정보로 유도해 주는 필연적 덧붙임의 말본 범주라는 데 있다. 우리말의 준굴곡적인 토를 낱말의 자격을 주어 “토씨”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라고 토씨 즉 조사를 단어로 보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4) 조사가 단어가 아니라면 단어보다 작은 단위인 형태소일 것이다. 형태소는 단어가 구성과 관련하여 볼 때,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어기와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접사로 구별되는데(어기와 접사, 어간 및 어근의 개념은 이익섭·임홍빈(1983)의 정의를 따른다), 조사는 어휘의미는 없고 문법적 의미만 있으므로 접사에 해당할 것이다. 또, 조사가 선행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접사 가운데서도 굴절접사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5) 金永錫·李相億(1992: 31) 참조

를 취하는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단어의 어형 변화를 종결시키는 요소라는 굴절접사의 정의와 맞지 않을 뿐더러 부사가 굴절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냄으로써 비굴절 어휘범주인 국어 부사의 특성과도 위배된다.

넷째, 조사는 선행어와 결합한 형태로만 문장에 쓰일 수 있어서 (4)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나, 조사의 선행어가 가지는 자립성을 미루어 볼 때 조사는 선행어에 대해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3)○과 같이 조사가 생략되는 현상이다. 조사를 굴절접사로 보게 되면 조사 구성은 어간+굴절접사의 구조를 가지는 단어가 되는데, 문장의 통사구조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굴절접사가 생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⁶⁾.

한편, 조사를 단어로 보지 않는 입장으로는 리근영(1985), 고영근(1993), 서정수(1994) 등을 들 수 있다. 조사를 단어로 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는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단어가 될 수 없다((4)ㄴ). 조사가 단어임을 주장하는 논의에서는 조사가 어느 정도 자립성을 가진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선행어의 자립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조사가 단어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단어가 아닌 파생접미사도 ‘멋쟁이, 장난꾸러기, 육손이…’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립성을 가진 선행요소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형태소의 자립성은 그와 결합하는 요소의 자립성으로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조사가 단어의 요건인 자립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둘째, 조사구성은 선행어와 조사 사이에 휴지나 다른 단어를 개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사 구성 전체는 하나의 단어로서의 요건을 만족하게 되

6) Bybee(1985), 전상범(1995) 참조. 특히 Bybee(1985: 17)에서는 어떤 의미 요소가 굴절범주(예를 들면 영어의 성, 수, 시제 등)로 성립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할 요건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굴절범주가 수의적으로 생략될 수 없음이 지적된다. 즉, 통사적 요건이 만족될 때, 굴절범주는 결합 가능한 의미·통사 범주에 소속된 모든 어간과 결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며((4)ㄷ, ㄹ), 이 때 조사는 단어의 구성요소인 접사, 특히 굴절접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형태소 < 단어 < 구 < 문장’의 위계와 (4)의 전통적인 단어개념을 바탕으로 할 때 조사는 단어로도 볼 수 있고 접사로도 볼 수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3. 단어 개념의 수정과 조사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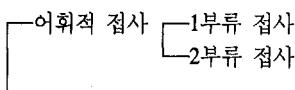
3.1. 통사적 단어의 설정 : 통사적 접사로서의 조사

(4)의 단어 개념을 수정함으로써 조사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시정곤(1994)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단어형성 및 접사의 개념을 통사적 층위에까지 확대하여 통사적 단어와 통사적 접사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조사를 접사로 보는 것이다.

시정곤(1994)에서는 단어의 형성이 어느 특정한 부문 - 형태부 -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법의 각 층위, 즉 어휘부와 통사부, 음운부에서 각각의 형성원리를 통해서 생산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단어형성이 어디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단어의 종류도 관용어, 어휘적 단어, 통사적 단어, 음운적 단어로 나누어진다. 한편 접사는 ‘단어 내부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며 자립성이 없는 의존형태소’로 정의되는데, 단어 형성의 층위와 궤를 같이 하여 접사도 형태론에서 활동하는 어휘론적 접사와 통사론과 관련을 맺는 통사적 접사로 나누어진다고 한다⁷⁾. 여기서 조사는 자립성이 없

7) 여기서 어휘적 접사란 X^0 를 대상으로 취하는 접사로서 전통적인 접사와 일치하는 개념이고 통사적 접사는 통사부에서 구(즉 XP)와 결합하여 새로운 구를 형성하는 접사를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접사체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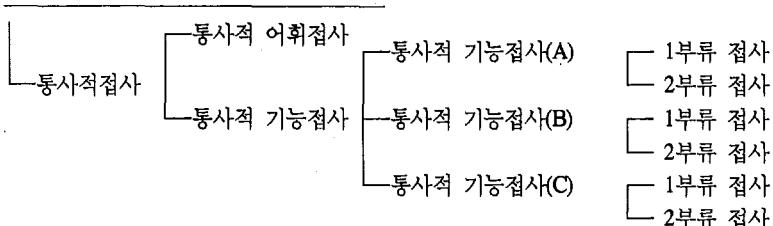
<시정곤(1994)의 접사체계>



으므로 접사인데 그 중에서도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므로 통사적 접사로 정의된다.

조사를 통사적 접사로 보기 때문에 명사구에 조사가 결합하는 과정은 ‘명사구를 어근으로 하여 또 다른 구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는 통사적 접사화라고 설명된다⁸⁾. 또, 통사적 접사화에 의해 형성된 명사구+조사 구성에서 조사는 접사라는 형태론적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명사구의 핵이동을 촉발하게 되고⁹⁾ 그 결과 명사구의 핵과 조사가 결합되어 ‘명사+통사적 접사(조사)’의 구조를 갖는 통사적 파생어¹⁰⁾를 형성하게 된다.

결국, 접사의 특성으로 자립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접사가 단어 내부의 요소라는 전제를 제거함으로써 전통적 단어형성론에서는 등치관계에 놓였던 접사화와 단어형성(파생)이 시정곤(1994)에서는 ‘통사적 접사화≠통사적 파생’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정곤(1994)에서는 통사적 접사화와 통사적 파생이 별개의 과정이 되는 것일



- 8) 통사적 접사화는 $[[NP] [*Affix]_N]_{NP}$ 혹은 $[[[NP] [*Affix]_N]_N [*Affix]_N]_{NP}$ 로 형식화된다.
- 9) 이러한 시정곤(1994)의 설명에 대해 박진호(1994)에서는 통사적 접사라는 개념 자체가 음운론적 개념인 접사를 통사론의 논의에 끌어들인 모순된 것이며, 나아가 통사적 파생의 핵심기제인 ‘형태론적 정보에 의한 핵이동’이라는 기제가 음운론의 충돌과 통사론의 충돌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오류임을 지적하고 있다.
- 10) 통사적 파생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①통사적 파생어에서 ‘파생’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어휘를 형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어근과 하나 이상의 접사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②따라서 통사적 파생어는 ‘명사+통사적 접사’나 ‘동사+통사적 접사’의 구조를 가지며, ③접사의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이들 구조가 사전에 등재되는 것이 아니고 통사규칙에 의해 계속 생성된다.(PP56-57) [철수가]_N, [밥을]_N 등을 통사적 파생어로 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각 과정에 참여하는 통사적 접사의 성격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즉, 통사적 접사는 통사적 접사화 과정에서는 통사적 구성과 관계를 맺는 접사로 정의되는데, 통사적 파생 과정에서는 단어 내부의 접사로 정의되는 것이다. 이는 명사구의 핵+통사적 접사(조사) 구성을 통사적 파생 어라고 정의하면서 그 근거로 이 구성이 어근+통사적 접사의 구조를 지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통해 드러난다. 즉, 명사+조사 구성이 단어(파생어)인 이유는 통사적 접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정곤(1994)에서 조사를 통사적 접사로 설정하고 조사 결합 현상을 통사적 접사화 및 통사적 파생으로 설명한 것은 통사현상과 단어형성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하려는 논의의 전체적 의도와 부합하며 내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조사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한다고 생각된다.

또, 자립성 유무와 파생어기 여부가 접사 판정의 기준이 된다면 시정곤(1994)에서 접사로 다루어진 전통문법의 파생 접사와 조사, 어미뿐만 아니라, ‘것, 수, 리 …’ 등의 의존명사가 모두 접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시정곤(1994)에서도 이들이 의존성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접사와 동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들을 접사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을 통해 볼 때, 시정곤(1994)에서는 접사를 단어내부의 요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단어 내부의 요소라는 전통적 정의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시 단어를 전제하지 않은 접사의 설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이 외에도 이미 박진호(1994)에서 지적된 바 있는 핵이동 개념의 타당성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통사적 구성인 명사구와 조사의 결합체가 명사구의 핵과 조사의 결합체로 구조를 변경하게 되는 과정인 ‘통사적 파생’이 과연 정말 ‘통사적’인 것인가 즉, 정말 통사부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된다. 이와 아울러, ‘아주 멀리는 가지 않았을 거야’처럼 부사

11) 이들은 음운론적으로 선행어나 후행어와 함께 음운론적 단어를 이루는 자립성이 없는 요소이며(유필재(1994)), 시정곤(1994)의 단어 정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사부에서 X^0 층위에 속한다는 조건은 만족하지만 어휘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단어로 볼 수 없는 형태소들이기 때문이다.

에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어떻게 통사적 파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통사적 단어 개념을 받아들이더라도 ‘멀리는’의 범주를 N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3.2. 단어 개념의 해체와 조사의 성격

통사적 접사화 및 통사적 단어를 설정하여 조사를 접사로 규정하고자 한 시정곤(1994)과 달리, 단어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국어 문법에서 조사의 성격을 밝히는 논의가 박진호(1994)에서 제시되었다. 여기서는 언어의 음운론적 구조와 통사론적 구조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들은 동형적이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국어 문법의 여러 개념들을 재정립하는데, 전통적인 단어의 정의 즉 (4)에 제시된 ‘문장 구성의 기본 단위로서 자립성을 가지는 단위’라는 정의는 이질적인 두 개념, 즉 통사론적 단위로서의 단어 개념(통사적 원자)과 음운론적 단위로서의 단어 개념(음운론적 단어)을 결합한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종래의 단어 개념을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적 원자’로 해체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단어 개념의 해체에 따라 (1)과 같은 조사의 정체성 문제가 단순하게 정리되는데, 조사는 음운론적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음운론적 단어는 아니지만, 구나 절 등의 통사적 단위와 결합하여 통사적 의미를 나타내는 통사적 원자로 정의되는 것이다.

이처럼 박진호(1994)에서는 단어 개념을 해체하여 조사의 이중성 - 통사원자이면서 음운론적으로 접미사임 - 을 분리하여야 하며 문법론의 영역에서는 조사의 통사적 성격만이 문제되어야 함을 지적함으로써 (1)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조사가 접사성과 단어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통사론이나 음운론을 각각 논의할 때에는 불필요한 정보이지만 통사원자인 조사가 음운론적 접사로 사상寫像되는 기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이다. 또, 이 과정에서 통사원자는 음운론적으로 단어인 통사원자와 음운론적으로 접사인 통사원자로 나뉘게 되는데 이러한 통사론적 특성과 음운론적 특성의 상호 관계를 반영하는 범주 분류가 통사론에서의 범주 분류인 품사 분류와는 별도로 이루어져 어휘부에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¹²⁾.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의 정체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접어와 조사

4.1. 접어의 정의와 그 특성

4.1.1. 접어의 정의

3.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단어 개념의 수정 없이 전통적인 단어 개념을 바탕으로 조사의 성격을 정의해 보고자 할 때 주목되는 개념이 접어(接語 clitic)이다. 접어는 원래, 그리스어의 문법용어로, 그 자체에는 강세가 없고 선행어, 혹은 후행어에 제2강세를 두게 하는 현상, 혹은 그런 성질을 가지는 단어를 뜻하는 용어였다¹³⁾. 그런데, 일반언어학에서는 접어의 개념을 확대하여, 구나 절 등 단어보다 큰 단위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통사적으로는 단어이지만, 다른 완전한 단어에 기대어서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는 단어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형태소가 있음에 주목한다¹⁴⁾. 이러한 형태소 즉 접어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형태소 < 단어 < 구 < 문장’으로 위계화되는 언어 단위가 ‘접미사/어근 < 접어 < 단어 < 접어화된 단어 < 구

12) 이러한 분류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전 편찬이나 자연 언어 처리 등 문법 기술의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Sadock(1988)은 문법을 형태, 통사, 의미의 하위분야(module)로 나누고 이를 각 부문이 자립적이라고 전제하며(이 점에서 박진호(1994)와 동일하다), 각 부문의 정보들이 종합되는 부문으로 어휘부를 상정하는데, 이 어휘부의 기본 단위인 어휘소(lexeme)의 분류가 형태적 특성(박진호(1994)의 음운론적 특성), 통사적 특성, 의미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3) 趙成植 外(編)(1990)

14) Nida(1946), Matthews(1974), Klavans(1979), Zwicky & Pullum (1983), Zwicky (1985), Spencer(1991), Anderson(1992) 등

〈문장〉으로 명세될 수 있다. 결국 접어는 “스스로는 음운론적 자립성이 없으면서 자립성이 있는 단위에 결합하여 단어보다는 크고 구보다는 작은 단위를 구성하는데 통사적으로는 구와 관계를 맺는 형태소”로 정의될 수 있다¹⁵⁾. 여기서 접어와 통사적으로 관계를 맺는 구를 숙주구(宿主句 host phrase)라 하며, 접어와 직접 결합하는, 즉 음운론적으로 관계를 맺는 단어를 숙주어(宿主語 host word)라 한다.

4.1.2. 접어의 특성

접어는 음운론적으로는 접사이지만 통사적으로는 단어로 정의되므로 접사 및 단어와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그 특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접어는 음운론적 자립성이 없어서 숙주어와 음운론적으로 단어를 이루며 숙주어에 대한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굴절접사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5)와 같은 점에서 굴절접사와 구별될 수 있다.

(5) 접어와 굴절접사의 차이점¹⁶⁾

- ㄱ. 굴절접사는 어간이나 어근에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반면 접어는 단어에 결합한다. 따라서 접어화와 굴절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접어는 항상 굴절접사의 외곽에 위치한다.
- ㄴ. 굴절의 영역은 단어 내부인 반면 접어화의 영역은 구가 된다. 따라서 하위범주화 틀을 표현할 때 굴절접사는 어휘 범주 내부만을 언급하는 반면 접어는 구 범주를 포함하게 된다.
- ㄷ. 굴절접사는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나 어간이 특정 범주에 한정되지 만 접어는 어떤 범주의 단어와도 결합할 수 있다.
- ㄹ. 접어화에서는 형태음소적 불규칙성이 발견되지 않지만, 굴절에서는 발견된다.
- ㅁ. 접어화는 의미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반면 굴절에는 의미변화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
- ㅂ. 접어는 다른 접어구성에 다시 연결될 수 있으나 굴절접사는 중첩되

15) Hartmann & Stork (1972)

16) ㄱ-ㄴ은 Klavans(1979, 1983, 1985)에서, ㄷ-ㅂ은 Zwicky & Pullum (1983)에서 가져온 것이다.

지 않는다.

- ㅅ. 통사 규칙은 굴절된 단어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접어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접어는 구와 통사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통사적 구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어와 공통점을 갖지만 (6)과 같은 점에서 단어와 구별된다.

(6) 접어와 단어의 차이점¹⁷⁾

- ㄱ. 접어는 자립성이 없는 반면 단어는 자립성이 있다.
- ㄴ. 숙주어+접어 구성은 음운론적 단어를 구성하는 반면 단어+단어 구성은 음운론적 구를 구성한다.
- ㄷ. 접어는 인접 형태소와의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음에 반하여 (구를 이루는) 단어는 의미의 동일성이 전제되는 한 인접 단어와의 배열 순서가 자유롭다.
- ㄹ. 접어는 그 분포를 단일한 원리로 예견할 수 있는 반면 단어의 분포는 매우 복합적이어서 하나의 원리로 예측할 수 없다.
- ㅁ. 접어는 단어에 비해 형태론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갖는다.
- ㅂ. 단어는 삭제, 대치, 이동 등 통사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접어는 단독으로 통사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접어는 음운론적으로는 단어 내부의 요소인 접사이면서 통사론적으로는 단어로 정의되기 때문에, ‘구접사(phrasal affix)’라고도 정의되었으며¹⁸⁾, 이는 나아가 ‘단어란 무엇인가’하는 원론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요소인 것이다. 동시에 접어화는 음운론과 형태론 및 통사론이 모두

17) Zwicky(1985)에서 제시한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18) Klavans(1985), Anderson(1992) 등. 이 ‘구 접사’의 개념은 시정곤(1994)의 ‘통사적 접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시정곤(1994)의 통사적 접사는 통사적 단어 안에서는 종래의 접사와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접사와 차이를 보인다. 또, 접어화는 시정곤(1994)에서 설정하는 통사적 파생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후술 참조)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의 각 부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현상으로 지적된다.

4.1.3. 접어의 유형

접어의 유형 분류 기준으로는 접어의 위치, 어원 및 분포의 투명성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위치에 따른 분류는 접어가 결합하는 대상에 대한 접어의 위치에 따라 이루어진다. Klavans(1985)에서는 접어화의 영역(domain)이 구라는 점을 중시하여 (7)과 같은 세 가지의 매개변인에 의해 접어화가 일어나며 그 결과 접어가 (8)과 같이 유형화될 수 있다고 한다.

(7) 접어화의 매개변인

- ㄱ. 접어가 접어화 영역의 오른쪽에 놓이는가 왼쪽에 놓이는가 : 시작(Initialized) / 종결(Final)
- ㄴ. 접어가 접어화 영역의 단말 요소 앞에 놓이는가 뒤에 놓이는가 (Before) / 후행(After)
- ㄷ. 숙주어와의 결합에서 접어가 왼쪽에 오는가 오른쪽에 오는가 : 전접(Proclitic) / 후접(Enclitic)

(8) 접어의 유형

ㄱ. Initial, Before, Enclitic	$X = cl \text{ HP}[\dots] XP$	Kwakwala NP marker
ㄴ. Initial, Before, Proclitic	$XP \text{ HP}[cl=[]HW\dots] XP$	Greek article
ㄷ. Initial, After, Enclitic	$XP \text{ HP}[HW[]=cl\dots] XP$	Ngiyambaa enclitics
ㄹ. Initial, After, Proclitic	$XP \text{ HP}[[] cl=[]HW\dots] XP$	Tepecano -an
ㅁ. Final, Before, Enclitic	$XP \text{ HP}[\dots HW[]=cl []] XP$	Nganhcara clitics
ㅂ. Final, Before, Proclitic	$XP \text{ HP}[\dots [] cl=[]HW] XP$	Sanskrit pre-verb
ㅅ. Final, After, Enclitic	$XP \text{ HP}[\dots HW[]=cl] XP$	Spanish pronominal clitic
ㅇ. Final, After, Proclitic	$XP \text{ HP}[\dots] cl=X$	Greek negative ou-

HP= 숙주구

HW= 숙주어

한편 접어에는 영어의 'is, has'로부터 생성된 '-s'나 'have'로부터 생성된 '-ve'처럼 기존 단어로부터의 축약으로 인해 생성된 것과 영어의 소유격 표지 '-s'처럼 그 어원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앞의 것을 단순접어(simple

clitic)라 하고 뒤의 것을 특수접어(special clitic)라 하는데, 단순접어는 접어로의 축약이 일어나기 이전의 단어와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특수접어와 구별될 수 있다.

또한, 특수접어는 숙주구의 통사적 구조와 문법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굴절접어(inflectional affix)와 숙주구의 의미 및 화용론적 기능을 변화시키는 파생접어(derivational affix)로 나뉠 수 있으며, 이들이 동일한 숙주구에 연결될 경우 파생접어는 항상 굴절접어의 앞에 놓인다¹⁹⁾.

4.1.4. 접어화의 기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접어화는 음운론 및 형태론, 통사론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현상이며, 해당 언어에서 접어가 가지는 통사론적 성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구체적인 기제를 형식화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언어의 접어화 현상을 조사하고 그것을 유형화하여 정리한 Klavans(1985)를 바탕으로 접어화를 형식화하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S-구조에서 음운구조로의 사상원리를 제시하고 그 실현과정에서 형태론적 합류(morphological merger)를 설정하여 접어화를 설명하는 Marantz(1988), 자립어휘론의 틀 안에서 어휘소를 분류하면서 접어를 어휘소의 한 부류로 설정하고 접어화를 형태론적 표현과 통사론적 표현의 연합으로 설명한 Sadock(1988)이 그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통사적으로 단어이면서 음운론적으로 접미사라는 접어의 이중적 성격에 따라 접어화를 통사부의 현상과 형태부 혹은 음운부의 현상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4.2. 조사의 접어적 특성

19) Anderson(1992) 참조. 그는 접어가 구와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접사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 접사가 파생접사와 굴절접사로 나뉘는 것처럼 접어도 그러한 분류가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Klavans(1983)에서는 Kiparsky의 어휘음운론의 유순가설을 전제할 때, 어휘부 규칙의 적용을 받는 particle clitic과 후어휘부 규칙의 적용을 받는 pronominal clitic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때, 이들은 각각 Anderson(1992)의 파생접어와 굴절접어에 해당된다.

앞에서 살펴본 접어의 특성과 (2)에서 지적된 조사의 특성은 많은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치를 바탕으로 국어 조사를 접어로 설정한다면 조사는 (8)의 유형 7에 해당하는 특수접어에 해당할 것이다. (5)와 (6)에서 지적된 접어의 특성과 (2)에서 지적된 조사의 특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조사 를 접어로 설정하는 처리가 과연 타당한가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먼저 (5)ㄱ을 살펴보자. (2)ㅁ에서 지적된 조사 선행어의 자립성, 조사와 선행어의 분리 가능성 등을 조사와 결합하는 요소가 단어임을 뒷받침해 주는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깨끗도 하다'처럼 어근에 조사가 직접 연결되는 어근 분리 현상을 근거로 조사가 (5)ㄱ에서 제시된 접어의 특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깨끗도 하다'는, '깨끗하기도 하다'에서 '깨끗하다'라는 단어에 결합하는 요소 '-도'가 이 동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²⁰⁾. 따라서 이러한 어근 분리 현상이 조사가 (5)ㄱ과 같은 접어의 특성을 지닌다는 기술에 대한 반증이 되지는 못 한다.

(5)ㄴ에서 접어화의 영역이 구라는 것은 접어가 통사론의 단위가 됨을 의미한다. 국어의 조사 결합이 단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구의 형성에 관계하는 것임은 조사가 문장 구성소 혹은 통사적 원자임을 지적한 고영근 (1993)이나 박진호(1994) 등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5)ㄷ은 접어와 결합하는 숙주어의 어휘 범주에 제약이 없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국어의 조사도 (2)ㄹ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체언뿐만 아니라 용언의 활용형 및 부사, 감탄사 등 다양한 범주 뒤에 올 수 있어서 조사와 접어의 특성이 일치한다.

(5)ㄹ에서는 영어의 복수 쿨절에서는 dice, oxen, feet 등의 불규칙형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불규칙성이 접어 결합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국어 조사의 경우, '나/너/저+이/가' 구성인 '내가, 네가, 제가'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어+조사' 구성은 규칙적이라는 점에서 접어의 특성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¹⁾.

20) 김창섭(1996)에 의한다. 나아가 김창섭(1996)에서는 이러한 위치에 나타나는 특수조사를 접어라고 본다.

21) 그러나 이러한 서술이 문법사의 기술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중세국어에

(5) □에서는 굴절접사구성이 A(어근/어기의 의미)+B(접사의 의미)→C의 의미변화를 일으키는 반면 접어화는 A(숙주어의 의미)+B(접어의 의미)→(A+B)를 유지함을 언급한다²²⁾. 국어의 조사 구성도 항상 구성요소의 의미를 유지함으로써 접어로서의 조건을 만족한다.

접어가 중첩될 수 있음을 언급하는 (5)은 (2)에서 지적된 조사의 특성과 일치하는 것이며, 기존논의에서도 조사를 접사로 볼 수 없는 근거로 제시되었던 사항이다.

(5) △은 굴절형은 곧 단어이므로 통사규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숙주어+접어 구성은 통사적 단위를 이룰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다음의 예들을 검토해 보면, 조사가 접어의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9) ㄱ. 교회에서 만난 철호의 말투와 학교에서 만난 철호의 말투는 영 딴판이다.

- ㄴ. *교회에서 만난 철호의 말투와 학교에서 만난 그 말투는 영 딴판이다.
- ㄷ. 교회에서 만난 철호의 말투와 학교에서 만난 그의 말투는 영 딴판이다.

(10) ㄱ. 김선생님이 가르치신 학생들이 선생님댁을 방문했다.

- ㄴ. [김선생님이 가르치시]ㄴ 학생들이 선생님댁을 방문했다.

(9)는 대용화에 있어서 ‘철호의’와 같은 단어+조사 구성이 한 단위로 다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이며 (10)은 조사가 기저구조에서부터 상정

서는 조사 결합에서 ‘특수어간교체’라 불리우는 일련의 불규칙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접어는 ‘단어 > 접어 > 접사’의 발달과정에 놓이는 단위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Anderson(1991)), 통시적 기술에 있어서 조사를 접어로 설정하는 것은 보편적인 언어 변화의 양상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현대국어 조사결합에서 나타나는 불규칙형의 존재 문제도 이러한 조사 결합의 통시적 발달 문제와 결부되어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는 우선 현대 국어로 논의의 대상을 한정하고자 하므로 이 문제는 후일로 미루고자 한다.

22) 굴절접사 구성이 의미변화를 가져오는 예로는 영어의 many 또는 much의 최상급형인 most가 ‘best’의 의미를 갖는 경우나 late의 최상급인 last가 ‘마지막’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되는 것이라 전제한다면, 명사구 삭제가 국어의 단어+조사 구성 전체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5)에서 지적된 접어의 특성을 조사의 특성과 비교하여 본 결과 조사가 접사보다는 접어의 특성을 가지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제 (6)을 중심으로 조사가 단어이기보다는 접어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한다.

(6) ㄱ-ㅁ은 접어의 형태, 음운적 특성이 단어의 그것보다는 굴절접사의 그것에 가까움을 지적하는 사항이다. 이는 국어의 조사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조사는 자립성이 없으며(ㄱ), 선행어와 결합하여 음운론적 단어가 되며(ㄴ)²³⁾, 선행어에 항상 후행하고(ㄷ), 체언, 용언의 활용형, 부사 등 자립성이 있는 단어 뒤에 결합하며(ㄹ), 조사는 파생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없다(ㅁ)는 점 등이 그것이다.

(6) ㅂ은 접어가 단어의 일부이기 때문에 단어와 달리 통사적 과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단어+조사 구성이 단어+단어 구성인지 단어+접어 구성인지를 판별하는 조건은 Zwicky(1985)에 의하면 (11)과 같다.

- (11) ㄱ. X+Y구성에서 X나 Y가 전체 구성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고 삭제 될 수 있으면 X와 Y는 단어이다.
- ㄴ. X+Y구성에서 X나 Y가 대용화될 수 있으면 X와 Y는 단어이다.
- ㄷ. X+Y구성에서 X나 Y가 단독으로 이동될 수 있으면 X와 Y는 단어이다.

(11) ㄱ에서 언급하는 삭제의 경우, (2) ㄹ에서 지적하였듯이 단어+조사 구성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이 구성에서 조사의 선행어는 절대 생략될 수 없으며((12)),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생략이 용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13) ㄱ', ㄴ')

- (12) *영수는 애서 으로 달려간다.
- (13) ㄱ. 오늘만 해도 그렇지 ...

23) 조사가 음운론적 단어의 일부가 됨은 유필재(1994)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 그'. *오늘 해도 그렇지 ...
- ㄴ. 영수는 학교에서 집으로 달려간다.
- ㄴ' *영수는 학교에서 집 달려간다.

(11) ㄴ에서 언급한 대용화의 경우, 단어+조사 구성에서 조사의 선행단어는 대용화될 수 있으나(9) ㄷ) 조사는 대용화될 수 없으므로 조사는 단어라 할 수 없다.

(11) ㄷ의 이동의 경우도, 단어+조사 구성에서 조사가 단독으로 이동할 수는 없으므로 조사는 단어라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특수접어가 파생접어와 굴절접어로 분류되고 그들간의 연결이 '숙주어 - 파생접어 - 굴절접어'의 순서로 고정된다는 사실은 국어 조사가 의미기능을 갖는 특수조사와 문장성분의 기능을 표시하는 격조사로 분류되고, 이들이 연결될 때 항상 일정한 순서에 따른다는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언어 단위의 위계를 '접미사/어근 < 접어 < 단어 < 접어화된 단어 < 구 < 문장'으로 상정하고 그 속에서 조사를 접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국어 조사의 정체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겠다.

4.3. 조사 결합과 접어화

조사 결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가 통사적으로는 단어이면서 형태, 음운적으로는 접사라는 이중성, 즉 통사부에서는 [... X Y] 조사]의 구조를 갖는 조사 구성이 음운부에서는 [... X [Y+조사]]의 구조를 갖게 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에 대하여 시정곤(1994)에서는 통사부에서 선행구의 핵이 조사로의 핵이동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즉, 통사부에서의 변형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4.2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통사규칙이 [명사구의 핵+조사] 구성이 아니라 [명사구+조사] 구성 전체에 대해 적용된다는 사실은 [[... X Y] 조사]에서 [[... X] Y+조사]로의 구조변화가 정말 통사부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또, 박진호(1994)에서 지적되었듯이 통사부의 현상인 핵이동이 구성요소의 음운론적 특성에 의해 유발된다는 설명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

적된다.

그러나, 조사를 접어로 보아 조사 결합을 접어화로 설명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4.1.3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접어화는 통사부에서 음운부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통사부(S-구조)에서 음운부(음운구조)를 연결해 주는 사상원리와 음운부에서의 형태론적 합류라는 기제로 접어화를 설명하는 Marantz(1988)을 통하여 조사 결합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한다.

- (1) 조사는 단어로서 자신의 통사 범주를 가지고 통사부에 삽입되어 선행구와 관계를 맺는다²⁴⁾. 이 때 조사 결합 구성의 구조는 [[… X Y] 조사]로 표현될 수 있다.
 - (2) S-구조에서 표시된 선행구와 조사의 관계는 (14)의 사상원리에 따라 음운 구조로 사상되는데, 이 가운데 접어와 숙주어의 관계에 적용되는 ㄴ의 원리에 따른다.
- (14) 사상원리: A에 대한 B의 S-구조에서의 관계는 다음의 음운론적 관계와 일치한다
- ㄱ. A는 구조적으로 B를 지배한다(수형도에서 비대칭적 자매교점으로 표현된다).
 - ㄴ. A는 B에 인접한다(좌/우 인접)
 - ㄷ. A가 B를 형태론적으로 격표시한다(A에 의해 결정된 형태론적 요소가 B 또는 B의 핵에 표시됨)
 - ㄹ. A가 B에 일치한다(B에 의해 결정된 형태론적 요소가 A 또는 A의 핵에 표시됨)
- 그 결과 [[… X*Y] *조사]의 구조를 얻는다. 이 때 *은 인접관계에 놓임을 의미한다.

24) Marantz(1988)에 의하면 S-구조에는 추상적 격할당이나 지배 등의 문법적 관계가 표시되며 구성요소들의 선조적 배열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들의 선조적 배열은 음운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S-구조에서의 문법적 관계에 따라 음운 구조에서의 배열을 결정해 주는 사상원리가 개입하게 된다.

(3) 이 때 음운구조에서 조사는 선행구의 핵과 인접관계를 만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인접관계는 ‘결합적²⁵⁾’이다. 따라서 [[… X]* [Y *조사]]로 팔호매김이 변화되는 것도 허용된다.

(4) 형태론적 합류²⁶⁾에 의해 조사가 선행구의 핵에 접미된다.

5. 맷음말

지금까지 문법 기술의 한 단위로서 조사가 가지는 이중성 처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존의 논의에서 그것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다른 해결방안은 없는지를 알아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는 음운론적 자립성이 없이 선행어와 더불어 음운론적 단어를 이루기 때문에 접사로 정의될 수 있는 반면, 통사적으로는 통사적 구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단어로도 정의될 수 있다는 이중성을 보인다.

(2) 형태소 즉 접사의 특성과 단어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조사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형태소 < 단어 < 구 < 문장’으로 정의된 언어 단위의 위계구조를 수용하되 단어의 개념을 수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위계구조를 수정함으로써 조사의 위치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3) 단어 개념의 수정을 통해 조사의 성격을 밝히려는 시도의 하나로 시정곤(1994)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단어형성과 접사의 개념을 통사부까지 확대하여 조사의 이중성을 바탕으로 조사를 ‘통사적 접사’로 정의한다. 또,

25) 수학이나 논리학의 개념으로, $A+(B+C)=(A+B)+C$ 와 같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특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음운구조에서 ‘[… X * Z] * W … ’의 인접관계가 ‘… X * [Z * W] ’의 구조에서도 유지됨을 의미한다.

26) Marantz(1988)에서 설정하는 형태론적 합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형태론적 합류: 통사 분석의 어느 층위에서든(D-구조, S-구조, 음운구조)

Y의 어휘핵에 대한 X의 어휘핵의 접사화를 통해 X와 Y의 관계가 표현될 수 있다.

조사 결합 현상을 통사적 접사화 및 핵이동을 통한 통사적 파생을 통해 설명한다. 이러한 시정곤(1994)의 논의는 통사적 접사 설정의 타당성, 통사적 접사화와 통사적 파생의 분리에 따르는 논리적 문제와 더불어 국어의 조사가 명사구 이외의 범주와 결합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4) 단어 개념의 해체를 통해 조사의 정체성 문제 자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로 박진호(1994)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조사의 접사적 성격은 음운론의 문제이며 통사적 단위로서의 성격은 통사론의 문제이므로 이 둘을 분리하여 다루어야 한다고 봄으로써 조사의 이중성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법 기술상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통사론의 범위 안에서는 유용한 것이지만 통사부와 음운부의 상호관계나 어휘 기술에서의 범주화라는 측면에서 제기되는 조사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5) 접사와 단어의 중간적 요소인 접어개념을 도입하면 ‘접사/어근 < 접어 < 단어 < 접어화된 단어 < 구 < 문장’이라는 언어 단위의 위계구조를 얻게 되며 이 위계에서 조사는 접어로 설정될 수 있다. 이처럼 언어 단위의 위계 조정을 통해 조사를 접어로 보게 되면 어휘 기술을 할 때 조사의 이중성을 한 범주 안에서 설명될 수 있게 되며, 조사 결합을 통사부와 형태음운부의 상호 작용 기제인 접어화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사를 접어로 설정했을 때 앞으로 더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어에는 조사 외에도 음운론적으로 자립성이 없으면서 통사적 구성을 참여하는 특성을 가지는 일련의 형태소들이 있다. 용언의 어미나 ‘것, 수, 줄’ 등의 의존명사, ‘-끼리, -씩, -답-’ 등의 소위 ‘통사적 파생접사’들이 그것이다. 이들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접어로 설정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만약 용언 어미나 통사적 파생접사, 의존명사 등이 접어라면 전체 접어 체계 내에서 각 형태소 부류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즉 접어의 하위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며, 이들이 접어가 아니라고 판정되더라도 접어와 접어가 아닌 요소들을 포함한 범주 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1)의 결과가 어떤 양상을 띠게 되더라도 접어라는 체계를 수용한 국어 문법의 범주 분류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高永根(1983),『國語文法의 研究』, 서울: 塔出版社.
- 高永根(1989),『國語 形態論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高永根(1993),『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서울: 일지사.
- 金敏洙(1954),「國語文法의 類型」,『國語國文學』10, 서울 : 국어국문학회
- 김석득(1992),『우리말 형태론』, 서울: 탑출판사.
- 金永錫·李相億(1992),『現代形態論』, 서울: 學研社.
- 김창섭(1996),「국어 파생어의 통사론적 문제들」,『李基文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서울: 신구문화사.
- 남기심·고영근(1985),『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리근영(1985),『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박진호(1994),「통사적 결합관계와 논항구조」,『국어연구』123, 서울: 국어연구회.
- 서정수(1994),『국어문법』, 서울: 뿌리깊은나무.
- 시정곤(1994),『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서울: 국학자료원.
- 유필재(1994),「發話의 音韻論的 分析에 대한 研究 - 單位 設定을 중심으로」,『국어연구』125, 서울: 국어연구회.
- 李光政(1987),『國語品詞分類의 歷史的 發展에 관한 研究』, 서울: 한신문화사.
- 李翊燮·任洪彬(1983),『國語文法論』, 서울: 學研社.
- 李熙昇(1950/ 1974),『國語學概說』, 서울: 民衆書館 .
- 任洪彬·張素媛(1995),『國語文法論 I』,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전상범(1995),『형태론』, 서울: 한신문화사.
- 趙成植 外(編)(1990),『英語學辭典』, 서울: 新雅社.
- 최현배(1937/1971),『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허웅(1995),『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서울: 샘문화사.

- Anderson, S. R. (1992), *A-Morphous Morp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Bybee, J.L.(1985), *Morpholog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jamins Publishing Company.
- Hammond, M. & Noonan, M. (eds)(1988), *Theoretical Morphology*, San Diego: Academic Press.
- Hartmann, R.R.K. & Stortk, F.C(1972),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London: Applied Science Publishers.
- Klavans, J.L.(1979), On Clitics as Words, *CLS* 15.
- Klavans, J.L.(1983), The Morphology of Cliticization, *CLS* 19.
- Klavans, J.L.(1985), The Independence of Syntax and Phonology in Cliticization, *Language* 61-1.
- Marantz, A. (1988), Clitics, Morphological Merger, and the Mapping to Phonological Structure, in Hammond, M. & Noonan, M. (eds)(1988).
- Matthews, P.H. (1974), *Morp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da, E.A. (1946), *Morphology*,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adock, J. M.(1988), *The Autolexical Classification of Lexemes*, in Hammond, M. & Noonan, M. (eds)(1988).
- Spencer, A. (1991), *Morphological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 Zwicky, A.M. & Pullum, G.K. (1983), Cliticization vs. Inflection, *Language* 59-3.
- Zwicky, A.M.(1985), Clitics and Particles, *Language* 61-2.